

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

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안

2020. 8. 21(금) 오후 1시~ 3시30분

 YouTube 생중계

주관

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
서울시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

주최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
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

[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] 과 [공익적 활용]

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

1. 상반된 시선

◆ 코로나19 가 되살린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대감

- ✓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의 경제,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 확산, 그린 경제 활성화 등을 가속화
- ✓ ‘4차 산업혁명’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(AI)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 역시 다시 주목받기 시작



1. 상반된 시선

◆ 코로나19 가 되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대감

- ✓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은 매우 다양 '건강' 이나 '의료' 분야는 AI 기술을 접목하여 나온 가시적 성과들* 많음

* 암진단보조 프로그램 Watson,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

- ✓ 생명과학산업이 가파르게 성장*하자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가져다 줄 경제 성장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대도 증가

* 전세계 경제규모 80조 달러 중 의료보건산업비중 약 8조 달러(10%)

1. 상반된 시선

◆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

✓ 빅데이터 개방 위험성에 대한 비유 사례(칼럼)

한겨레(‘20.5.28) ‘신파우스트, 당신은 왜 나를 궁금해 하지요?’ (신영전 한양대 교수)

(그레트헨) 당신은 왜 나를 궁금해 하지요? 내가 불안증과 위염이 있고, 어제 약국에서 피부염 연고를 산 것 까지 왜 알려고 하지요?

(메피스토펠레스) 당신을 사랑해서,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... 참, 당신은 성형수술도 받았더군.

(그레트헨) 이 나쁜놈! 질병정보처럼 개인적인 것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것을 정부가 허용할 리가 없어요!

- 하 락 -

1. 상반된 시선

◆ **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**

- ✓ **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** (금융이나 교통 등과는 또 다른 문제)
- ✓ **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민감한 정보를 민간기업까지 개방하고,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출된다면 심각한 위해**
- ✓ **20.7월 발표된 정부 뉴딜 정책에는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,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은 불명확**

2. 정책 평가

◆ 형식적인 국민 중심의 데이터 수집 · 활용

- ✓ 정부는 '19년부터 My Data*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 설정

*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개인이 확인,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

- ✓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려는 것처럼 보임

정보주체인 환자가 검사영상이나 진료기록 사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병원에 비용 지불

2. 정책 평가

◆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

- ✓ My Data를 통해 국민들은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 열람하고, 필요시 민간에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* 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* 주요서비스 : 은행, 카드, 금융투자, 보험, IT, 핀테크 (출처 : 금융위원회)

- ✓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정보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, 개인이 험값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,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

2. 정책 평가

◆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

- ✓ My Data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이 동의한 경우,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,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방식
- ✓ 결국, 보험사나 제약사 등의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성격이 강함

“디지털 뉴딜 진단”(20.7.21., 참여연대) “국민의 데이터를 기업이나 산업계에 제공하여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”

3. 활용 방향

◆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 제한

- ✓ 민간사업자의 경우,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례*가 있었고,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실명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은 제한 필요

* 네이트,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(3,500만명 11.7월) 농협 등 카드 3사(1억 400만건, '14.1월), 홈플러스(5만명, '19.9월) 등

3. 활용 방향

- ◆ **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**
 - ✓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
 - ✓ 장기요양보험 도입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긴 결과, 빠르고 충분한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점차 질이 저하되고, 영리화 되어 뒤늦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원 투입 중
 - ✓ 민간에 서비스 개발을 명목으로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 시,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영리화 되고, 건강불평등 양산 가능성 높음

3. 활용 방향

◆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

- ✓ 공공에 이미 우수한 서비스들이 많으며, 일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추가 결합하면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

건강보험공단 “건강iN” 앱은 개인의 진료 및 국가건강검진결과 정보 제공,
“똑건UP” 앱은 만성질환자가 혈압 · 혈당 측정치 등을 저장하고 검진 · 진
료 기록과 연계하여 주치의가 상담 및 처방에 참고하도록 지원

3. 활용 방향

◆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는 익명정보만 활용

- ✓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개방은 절대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정책 평가나 제품개발은 익명화된 정보에 한해, 연구 목적을 충분히 심의 후 제공 필요

전국민 데이터를 수집 통합관리하는 핀란드도 민간 영리 목적으로는 제공 안함

- ✓ 데이터 3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보보안에 대한 철학이 명확*하고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이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

* 00 공공기관의 경우,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유료 제공

3. 활용 방향

◆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 강화

- ✓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, 본인의 조건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**OPT-OUT** 권리 보장
- ✓ 데이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채널 신설(위원회 등)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과정 구조화 필요

4. 결론

◆ 공공 중심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필요

- ✓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방향성을 거부하기 힘들
- ✓ 다만,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중심으로 적절한 관리방식이나 활용 체계 마련 필요
- ✓ 이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, 건보공단 노조는 데이터 관련 정책이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감시 할 것임

감사합니다.

